

울긋불긋 내장산 단풍 7~12일 절정

다양한 수종에 수려한 산세

올해도 전국 최고의 단풍 연출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 손꼽히는 정읍 내장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내장산의 단풍은 이달 7일부터 12일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내장산 단풍은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남부 내륙에 소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교차가 큰데다 일조시간이 길어 붉은 색이 잘 들고 화려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내장산 단풍은 올해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선명하지 않은 타 지역 단풍과는 달리 다양한 수종의 단풍나무들이 빚어내는 고운 빛과 수려한 산세가 어우러져 전국 최고의 단풍을 자랑하고 있다.

정자에 날개가 돌아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우화정과 그 옆으로 붉게 타오르는 단풍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다.

내장산에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 중 당단풍과 좁은 단풍, 털참단풍, 고로쇠, 신나무, 복자기 등 11종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그 중에서도 약 290년으로 추정되는 금선계곡의 가장 크고 오래된 단풍나무는 지난 8월 국내 최



단풍으로 물든 정읍 내장산 우화정.

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단풍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아기 조막손처럼 작아 '애기단풍'이라 불리는 단풍나무의 빛깔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내장산의 단풍을 보러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힐링과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단풍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장산국립공원 제5주차장 내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s@

군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군산시가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팩트를 대상으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농기계는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와 콤팩트인 것으로, 농협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농기계다.

사업 예산은 총 2억28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책정됐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인은 농기계의 제조년도, 규격, 모델명, 제조

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제조년도와 규격 등에 따라 보조금은 트랙터 100만~2249만원, 콤팩트 100만~13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미정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군산지역은 현재 2095대의 트랙터와 콤팩트가 등록돼 운행되고 있다"라면서 "내년 지원되는 사업량은 30대 내외"라고 했다. 이 사업은 대기먼지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라며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순창군, '스마트 관광도시 성숙도' 최우수상

순창군이 경제대 스마트관광연구소와 여행리서치 데이터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대상 '스마트 관광도시 성숙도 지수 평가'에서 '협력적 파트너십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스마트 관광도시 성숙도는 경제대 스마트관광연구소가 개발한 모델이다. 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 4월30일~5월26일까지 여행자 3만 3485명, 현지인 3만62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22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

로 각 지역의 매력성, 접근성,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협력적 파트너십 등 5개 부문을 평가했다. 이후 종합부문과 부문별 대상·최우수를 각각 선정했다.

순창군은 광역도 기초단체 중 협력적 파트너십 부문에서 함평군과 함께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순창군 관계자는 "현재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지역 관광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건강과 행운 온다는데... 흥부대박길 걸어볼까

흥부제전위, 6일~30일

남원 일월면 일원서 걷기 행사

제29회 흥부제의 일환인 '흥부대박길 걷기' 행사가 6일부터 30일까지 남원시 일원면 일원에서 열린다.

흥부제전위위원회에 따르면 '흥부대박길 걷기' 행사는 당초 지난해 흥부제 기간에 맞춰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10월중 지역축

제 및 행사 관련 자제 요청'에 따라 일정을 잠정 연기했고, 이번에 개최기로 결정했다.

흥부대박길은 흥부의 출생지인 남원시 일원면과 발복지인 아영면을 연결하는 길로 설명된다. 총 14km로 고난의 길과 희망의 길, 고진감래의 길 등 3개 구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번 행사 코스는 일원 성산마을(시작점)부터 자래마을까지 이어지는 약 5.75km 구간이다.

방식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앱을 설치 후 흥부대

박길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시작점과 종점의 인증샷을 개인 SNS에 후기로 올리고, 캡처한 사진을 워크온 게시판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남원예촌 숙박권, 옷장목기세트, 남원 농산물세트, 화인당 한복촬영권 등의 경품이 지급된다.

이동식 흥부제전위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흥부대박길 걷기 행사에 참여해 우애와 나눔, 보은을 상징하는 흥부 정신을 느끼길 바란다"며 "더불어 건강과 행운을 얻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7일까지 고창농촌영화제... 다양한 작품 상영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가 5일부터 7일까지 고창군 동리시네마 등에서 개막한다.

이번 영화제는 '고창, 농촌영화를 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농촌영화를 통해 힘들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와 응원을 표현했다.

국내 최초 농업·농촌을 테마로 한 농촌영화제를 통해 고창군이 영화의 메카로써 자리매김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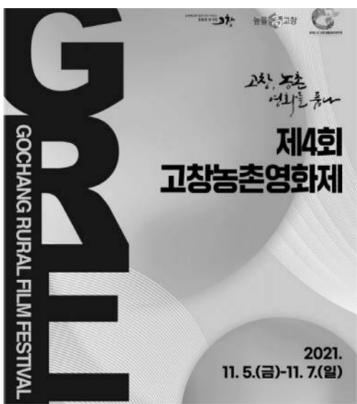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및 축소 운영되며, '드라이브 시네마 in 고창'으로 진행된다. 개막작으로는 이상훈 감독의 신작 '기적'이 선정됐다.

윤재호 감독의 '파이터', 박성진 감독의 '열두

살', 허정재 감독의 '첫 번째 아이', 이재은·임지선 감독의 '성적표의 김민영', 김은경 감독의 '쇼미더고스트', 황준하 감독의 '인플루엔자' 등 한국 장편 경쟁 공모작 6편도 관객들을 만난다.

고창군을 배경으로 촬영한 3분 분량의 숲뜸, 영화학교 수료작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농촌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진기영 농촌영화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정했다"며 "관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농촌영화제 포스터.

익산시 '열린 어린이집' 신규·재선정 44곳 선정

익산시가 시설 개방과 부모 참여 확대를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44곳을 선정했다.

'열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의 하나로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

또 보육내용이나 건강·안전·급식·위생 등 부모의 일상적 참여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곳이다.

시는 지난 9월 '열린 어린이집' 신규 선정 및 재선정 신청을 받아 개방성, 참여성, 지속성,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신규 24곳, 재선정 20곳 등 총 44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곳을 포함해 관내 열린 어린이집은 총 64곳으로 늘었다

이는 익산시 전체 어린이집 177곳 중 36%로, 전북 평균 23%를 웃돈다.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점, 보조교사 및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부모가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해 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